주요개념 : 이성교제, 성접촉, 자아존중감, 자기주장

이성교제를 하는 십대여학생의 성접촉과 자아존중감 · 자기주장의 관계

이 선 경*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여성의 성 생식 건강보건은 임신, 출산 이후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전의 청소년기의 성 건강으로부터 출발한다. 청소년기는 일생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인 면이 성숙되고 통합되어 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인이 되기 위한 인격 완성의 준비 시기이다. 이 시기에 필요한 주요 인격발달 과제 중 하나는 신체적 성적 발달과 성적 자아의 완성인데 이를 통해 스스로가 성적인 인간으로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Gorden 등, 1979).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 이성교제이다.

우리나라 십대 청소년의 이성교제 경험률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으나 약 반수의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언희, 1992; 김정옥, 1993; 김태근, 1997; 미태순, 1994; 이찬, 1996). 이성교제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의 하나로 이성과 친밀감 형성을 위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계형성을 배우게 되는 긍정적 경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문화는 서구의 성 개방 풍조와 대중매체의 영향, 성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 성의 상품화, 성도덕의 혼란 및 성 정보의 범람으로 성문화가 왜곡되어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성교제하는 과정에서 심각하게 표출되는데 이성교제 하는 청소년인 경우 이성교제 하지 않는 청소년보다 더 많은 성문제를 가지고 있다(김상원, 1996; 이양재 외, 1998; 안창선, 1993). 청소년들은 이성교제 과정에서 많은 성 경험을 하게 되며, 성병, 임신, 낙태 심지어 성폭력과 성희롱을 당하기도 한다(김상원, 1996). 청소년들은 이성교제를 통하여 자신의 성에 대한 호기심을 손쉽게 해결하기도 하고, 우리사회의 잘못된 성문화를 또래 이성친구에게 파급하기도 한다. 십대여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경험들이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데 가벼운 성접촉으로부터 이어지는 성교경험은 임신, 낙태, 성병 감염의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미혼모, 학업의 중단, 가족으로부터의 분리, 개인적인 자부심의 저하, 성 정체성의 혼돈, 이성에 대한 불신, 사생아 출산, 동료 집단으로부터의 탈락 등의 심리 사회적인 문제를 동반하게 되며, 불임, 자궁외 임신, 전치 태반등의 전 생애적인 성 생식 건강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발단이 된다(최연순 외, 1999).

따라서 이성교제 하는 청소년 그 중에서도 특히 십대여학생을 중심으로 성건강 차원의 임신예방 및 원치 않는 성교 예방에 주력해야 하고 이를 위한 연구가 선행되

* 2000년 2월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제출 논문임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

어야 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십대여학생 12,733명과 미혼모 146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보고서인 '십대 여성의 임신 실태 및 예방대책'(장순복 외, 2000)에서 청소년 자신들이 주장하는 원치 않는 성교 예방법과 원치 않는 임신 예방법으로는 자기주장 능력 향상을 가장 우선시 하였고, 그 다음으로 사실적이고 감성적 성교육과 남성을 위한 성교육을 강력하게 제안하였다. 청소년 자신들이 임신 예방과 원치 않는 성교예방 방법에 대해 자기주장을 언급한 것은 자기주장이 십대 여학생의 성교나 임신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방법이자,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10대 여학생들이 이성교제 하는 과정에서 성접촉은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청소년들에게 성접촉과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가벼운 성접촉으로부터 발단이 되어 성교에 이르게 되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신체적 성접촉에 뒤따르는 성교가능성과 후속적인 임신 가능성, 성병감염의 가능성 등을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의 성교육에 기본 지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계적 성접촉 중에서 성교에 이르는 과정에 적절한 중재 시점을 찾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2. 연구 문제

십대여학생의 이성교제시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과 성접촉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연구 목적

1)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성접촉 실태를 조사한다.
2)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조사한다.
3)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자기주장을 조사한다.
4)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성접촉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조사한다.
5)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성접촉과 자기주장의 관계를 조사한다.

4. 용어 정의

1) 성접촉

이성간에 이루어지는 성적인 신체적 접촉의 정도를 의미하며(윤가현, 1998) 본 연구에서는 이성교제 과정에서 경험하는 손잡기, 어깨동무, 가벼운 뽀뽀, 키스,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성교하기 등의 각각의 신체적 성접촉 경험 여부이다.

2) 자기주장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행동 또는 느낌과 생각을 말하는 행동으로 소극적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행동이며(Fensterheim, 1975), 본 연구에서는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촉을 남자가 시도할 때 여학생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장순복(2000)이 개발한 7문항을 3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의 합을 의미한다.

3) 자아존중감

자아개념의 평가적 요소로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Argyle, 1972)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지각정도를 말하며 이는 Rogenberg(1971)에 의해 개발된 self-esteem scale의 10개 항목을 4점 척도로 측정한 점수의 합을 의미한다.

Ⅱ. 문헌 고찰

1. 이성교제와 성접촉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성교제 과정을 거치면서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이성과의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능력을 터득하게 된다(윤가현, 1998).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는 여가를 즐기는 기능,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기능, 시간이 흐를수록 상호 만족스런 친교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기능, 성장 후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기능, 마지막으로 데이트를 통하여 상호 용납되는 범위 내에서 성 행동을 경험하게 되는 기능을 갖고 있다(Atwarter, 1992).

대략적으로 남자는 12세에서 14세 전후, 여자는 13.5세에서 16세 사이에 이성접근 욕구, 성적 관심, 키스 욕구 등의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 평균적으로 15세 이후인 청소년 중기부터 이성교제를 시작한다(강태순, 1993). 청소년의 이성교제 경험율은 김언희(1992)의 연구에서 68.9%, 김정옥(1993)의 연구에서 51.6%,

미태순(1994)의 연구에서 64.1%, 이양재 외(1997)에서 41.2%, 이찬(1996)의 연구에서 39.2%, 김태근(1997)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59.8%(남학생 61.6%, 여학생 57.7%)가 이성교제를 해 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성교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키스나 애무 경험은 고등학교 1학년이 30.9%, 2학년은 45.2%, 3학년이 56.3%가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여 이성교제율과 함께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 있다(김태근, 1997). 키스, 애무 경험이 있는 학생은 성교 경험율까지 함께 올라가는 것도 볼 수 있는데(인문계 87.3%, 실업계 90.7%) 그 중 인문계, 실업계 공히 성교 경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키스 경험으로 나타났으며, 키스 경험은 키스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10배의 성교 경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양재 외, 1998).

최옥숙(1992)의 10대 여성의 성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10대 여성의 성교 경험 대상자는 주로 이성친구나 연인이 88.5%로 가장 많았고, 이양재 외(1997)의 연구에서는 여고생의 성 경험 대상자로 남자친구가 63.8%로 가장 많았다. 이는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상원, 1996)에서 성 경험 대상자의 74.7%가 여자친구였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연구 결과를 보여 주었다. 심지어는 여고생 성추행 가해자의 99.3%, 성폭행 가해자의 89%가 남자친구였으며, 성병 경험 경로로 총 7명의 감염자 중 5명이 남자친구를 통하여 감염되었다는 연구(김영희, 1992; 홍원호, 1995)도 보고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헌을 고찰한 결과 십대 여학생들은 그들의 발달과업 상 중요한 이성교제 과정에서 많은 성접촉을 경험하고 있고 이는 10대 임신, 낙태 성병, 성폭력 등 성건강을 위협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십대여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

자아존중감(global self-esteem)이란 자신에 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Rogenberg, 1979).

Reasoner(1994)는 폭력과 범죄에 대한 1,000여 개의 연구 논문과 기사를 개괄한 그의 연구에서 첫째, 낮은 자아존중감이 여러 종류의 범죄나 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둘째, 자아존중감을 표방한 많은 프로그램들은 폭력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셋째, 모든 범죄가 관련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하며,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습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신종순(1990)의 고등학생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의 구성요인인 자기 중심성, 반사회성, 허황성은 모두 총 자아존중감과 부적 관계를 보여 주고 있어 이들 문제 행동을 많이 할수록 총 자아존중감이 낮아짐을 보여 주고 있다.

자아존중감과 성접촉과의 관계는 이미 나와 있는 연구가 없지만 조기 성교와의 관계는 몇 연구가 있다. 십대 여성의 조기성교는 정서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는데 첫 성교를 한 여성의 경우 남자보다 기쁘고, 만족하고, 흥분된 경험을 하기보다는 슬프고 죄책감을 가지며 긴장, 불안 당황, 공포를 느낀다고 하였다(Guggino, 1997). 청소년들은 성행위를 어른이 되는 관문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자아정체감을 확인하기보다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더 들고 첫 경험의 죄책감이 나이 들어서 현재의 성 만족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Moore, 1997). 이런 혼전 성교는 성병, 임신, 미혼모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갈등의 원천으로 남으며, 특히 여성에게는 성교로 인한 스트레스가 최근까지 심각한 정서 문제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최수일, 1996). 또한 성교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성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보다 더 심한 갈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성적 갈등을 볼 때 정서적으로 건강치 못한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청소년들보다 더 심한 성적 갈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체적인 면, 성 충동면, 성 가치면, 성 행동면등 각 요인에 있어서 모두 더 심한 갈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서적 정신건강과 성적 갈등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임용자, 1987).

십대 청소년의 비행행위와 성 경험률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비행 청소년이 이성교제율이 높고(함웅, 1985), 성 경험 및 임신과 음주, 흡연, 환각제, 가출등의 비행에 중복성을 보였다(이양재, 1998; Huizinga, 1993; Rosenthal, 1999; Miham, 1990). 따라서 십대 청소년들의 비행과 자아존중감과는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십대 비행의 성향이 높은 청소년이 성경험율이 높다고 밝혀졌으나 십대 청소녀의 성접촉과 자아존중감과는 이미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십대 여성이 성교 후에 갈등과 죄책감이 있다고 밝힌 연구만 있을 뿐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이 조기 성교에 이르게 된다는 연구

나 조기 성교에 의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는 연구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또한 성교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성관계에서 성교의 연속선에 있는 성접촉이 진행됨에 따라서 여성이 자신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한 이성관계가 진행됨에 따라 어느 시점에서 성접촉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는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을 높히는 중재적 의미의 개념이 자기주장인데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자기주장(assert)이란 "긍정적으로 확실하고 솔직하게, 또는 강하게 말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Fensterheim(1972)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행동 또는 느낌과 생각을 말하는 행동으로 소극적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Galassi 와 Delo(1974)는 낮은 주장 정도를 보인 청소년들이 열등감, 대인관계에서의 불안등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는 반면, 높은 주장정도를 보인 청소년들은 자기 주장적이고 성취 지향적이며,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하고 있다(임승규, 1999). 따라서 자기 주장 훈련은 부적절한 사고 형태인 낮은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주는 인지적 측면에서의 도움을 제공하고, 부적절한 정서적 불안이나 분노를 변화시켜 대인관계에서의 개인의 행동적 측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숙경(1993)은 보통 성관계의 과정을 보면 우발적이면서도 갑작스러운 경험이라고 표현하는데 여성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지만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남성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며 여성에게 동의를 확인하는 과정이 없고 설사 확인하더라도 여성의 거절이 완곡한 승낙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의 동의가 성관계하는 기준이 아니라 여성의 거절을 불사한 남성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성문화 연구소(1998년)의 대학생 성 행태 조사에 의하면 성 관계를 갖게 되는 이유가 남학생은 충동과 사랑, 쾌락이 주요 이유이지만 여학생은 사랑(74.6%)과 거절을 못해서(39.8%),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30.4%)로 정서적인 문제, 관계유지, 거절의 기술 부족이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비슷한 연구로 성문화 연구소(1998)의 미혼 성인의 성의식 및 성행태 조사연구에서는 남자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성적 충동 때문에(75.7%)로 가장 많았으나, 미혼여성이 경우에는 성관계하는 이유로는 사랑하기 때문에(84.3%), 사랑을 확인하려고(62.7%), 거절하지 못하여(58.5%), 좋아하므로(42.2%)순으로 응답하였다.

Wood(1998)는 성병과 임신, 원치 않는 성적 관계에 대항하여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여성의 능력을 부분적으로 간과하는 점에서 여성생식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Joyce Abma(1998)는 13세 이하의 여성 중 2%, 19-25세 이상의 여성의 10%가 자신의 첫 성교가 자발적이 아니라고 보고하였고, 자신의 첫 성교가 자발적이었다고 응답한 이들 역시 이들 중의 1/4이 자발행동의 척도에서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들은 첫 성 경험에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양가감정을 느끼면서도 자발적으로 성교에 참여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Claire Brindis(1999)는 비보호된 성행위의 위협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의도되지 않는 임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나이, 문화, 성, 성 경험 횟수에 따라 적합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어져야 하며, 특히 여성에게는 의사소통의 기술과 거절의 기술을 모델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럼으로써 자기 의견을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당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능력은 복종, 자제, 양보를 미덕으로 하는 유교문화권의 여성에게 특히 그 중에서도 인격이 채 완성되기 전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매우 필요한 능력이라고 보여진다(홍경자, 1996).

따라서 본 연구는 10대 여학생들이 이성교제 과정에서 어떠한 성접촉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은 어떠한가를 알아봄으로서 10대 여학생의 성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주장능력, 성접촉 경험정도를 파악하고, 이들간에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서 우편 설문지를 이용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표적 모집단은 전국에 소재한 총 4,684개교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13-19세의 십대여학생 1,988,902명이며, 근접 모집단은 전국에서 여학생을 포함하고 있

〈표 1〉 각 지역별 선정한 학교 수 (단위 : 개교)

		중학교		고등학생			전체
		중3		인문(고1,고2)	실업(고1,고2)	고교계	
도시 1개 학교 x100명	서울	5	1개교 x100명	5	4	9	14
	대전	4		4	5	9	13
	대구	4		5	4	9	13
	인천	5		4	5	9	14
	부산	5		5	4	9	14
	광주	5		4	5	9	14
	울산	4		5	4	9	13
도시 합계		32		32	31	63	95
		중학교		고1		고2		고교	
		중3		인문	실업	인문	실업	합계	
농촌 1개학교 x100명	경기	3	1개교 x 50명	3	4	3	4	14	17
	강원	4		4	3	4	3	14	18
	충북	3		3	4	3	4	14	17
	충남	4		4	3	4	3	14	18
	전북	3		3	4	3	4	14	17
	전남	4		4	4	4	4	16	20
	경북	4		4	3	4	3	14	18
	경남	3		3	4	3	4	14	17
	제주	3		4	3	3	4	14	17
농촌 합계		31		32	32	31	33	128	159
전체		63		96		95			254

는 중학교 2,741개교(남녀공학, 여학교)와 고등학교 1,943학교(남녀공학, 여학교) 중 다단계 집락 표출법으로 표출된 중학교 63개 학교와 191개 고등학교로 한다.

본 연구의 표본으로는 전국의 2,741개교의 중학교에서 다단계 집락 표출법으로 표출된 63개 학교에 다니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 6,300명과 1,943개 고등학교에서 다단계 집락 표출법으로 표출된 191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교 1,2학년 여학생 12,7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 중 이성교제를 경험하고 있거나 이성교제 경험이 있었던 여학생 6,130명을 대상으로 한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연구 도구는 일반적 사항 8 문항, 자아존중감에 대한 10문항, 신체적 성접촉에 관한 7문항, 자기주장에 관한 문항 7총 32 문항이었다. 본 도구는 자료수집에 앞서 2000년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여고생 50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해가 어렵게 표현된 내용이나 혼돈을 가져오는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안면 타당도와 내용 타당도를 보완한 뒤 연구도구로 사용하였다.

1) 자아존중감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지각정도를 말하며 Rogenberg(1965)에 의해 개발된 self-esteem scale을 전병재(1972)가 번안한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한 10개 항목을 4점 척도로 측정한 것으로 3, 5, 8, 9, 10문항은 역 환산하여, 최저 10점에서 40점까지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검사 신뢰도 측정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 0.78였고, 본 연구에서는 .8081이었다.

2) 자기주장

여학생이 이성교제시 원치 않는 접촉을 하려할 때 여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을 장순복 외(2000)가 개발한 7개 문항을 3점 척도로 측정한 도구로서, 1,2,3번의 문항은 역 환산하여, 최저 7점에서 최고 21점까지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장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전조사 결과 신뢰도는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 0.524 였고, 본 연구에서는 .6062이었다.

3) 성접촉

십대여학생의 이성교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적

성접촉의 정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손잡기, 어깨동무, 가벼운 뽀뽀, 키스,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성교하기 등의 7단계의 신체적 성적 접촉을 만남의 경과 횟수에 따라 표기하도록 7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로써, 각각의 신체적 접촉 경험이 몇 회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00년 10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로 우편을 이용한 질문지 자가 보고법으로 자료수집 되었다.

5. 자료분석

본 연구는 PC용 Window SPSS program (v.10.0)을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성교제시 신체적 성접촉 경험 정도, 자아존중감, 자기주장능력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범위등의 서술 통계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성접촉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주장의 차이 검정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추후 검사로 Duncan method의 결과인 그룹간의 차이를 Scheffe method를 통하여 그룹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3)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 능력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값을 구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 6,130은 중학교 3학년 1,579명(25.8%), 고등학교 1학년 1,782명(29.1%), 고등학교 2학년 2,706명(44.1%)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여학생 대상자 중에 현재 이성교제 과정에 있는 여학생이 2826명(46.1%)이고, 과거에 이성교제 경험이 있었던 여학생은 3,304명(53.9%)였다.

〈표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130

구 분			인 수(명)	백분율(%)
학교 형태(1)		남녀공학	2915	47.6
		여학교	3165	51.6
		무응답	50	0.8
학교 형태(2)		인문계고 주간	2382	38.9
		인문계고 야간	55	0.9
		실업계고 주간	1993	32.5
		실업계고 야간	21	0.3
		중학교	1579	25.8
		무응답	100	1.6
학 년		중학교 3학년	1579	25.8
		고등학교 1학년	1782	29.1
		고등학교 2학년	2706	44.1
		무응답	63	1.0
동 거 인		가족	5704	93.1
		하숙/자취	115	1.9
		기숙사	166	2.7
		보호시설	25	0.4
		친척집	66	1.1
		기타	54	0.8
거주지	도 시 (485.1%)	서울	344	5.6
		대전	640	5.5
		대구	490	8.0
		인천	465	7.6
		부산	377	6.2
		광주	358	5.8
		울산	348	5.7
	지 방 (44.3%)	경기	317	5.2
		강원	403	6.6
		충북	321	5.2
		충남	237	3.9
		전북	412	6.7
		전남	323	5.3
		경북	269	4.4
		경남	369	6.0
		제주	290	4.7
		무응답	467	7.6

2.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성접촉 실태

1)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최종 성접촉 분포

이성교제 과정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최종적인 성접촉의 단계로는 키스로 1634명(26.7%)였다. 이는 성접촉을 하지 않는 군의 분포인 842명(13.7%)보다 더 많은 비율로 이성교제 과정에서 키스를 흔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손잡기까지는 625명(10.2%), 어깨동무까지는 1269명(20.7%), 가벼운 뽀뽀까지는 691명(11.3%), 가슴 만지기까지는 359명(5.9%) 성관계까

지는 458명(7.5%)로 나타났다. 성기 만지기만 접촉한 대상자는 없었는데 이로부터 성기 만지기 단계에 이르러서는 성 관계 단계로 곧 이어지거나 가슴 만지기 단계에서 더 이상 접촉이 진행이 되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3〉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최종 성접촉 분포 n=6130

구 분	인 수 (명)	백분율 (%)
안 했다	842	13.7
손잡기까지	625	10.2
어깨동무까지	1269	20.7
가벼운 뽀뽀까지	691	11.3
키스까지	1634	26.7
가슴 만지기까지	359	5.9
성기 만지기까지	0	0
성관계까지	458	7.5
무응답	252	4.1
Total	6130	100.0

2)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만남의 횟수에 따른 성접촉 분포

각각의 성접촉이 만남의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면 손잡기는 만난 첫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많은 빈도로 1,950명(31.8%)이 나왔고, 어깨동무는 2-3회에 이루어지는 것이 1,367명(22.3%)로 가장 많았으며 가벼운 뽀뽀,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성관계인 경우에는 10회 이상 만났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 788명(12.9%), 256명(4.2%), 117명(1.9%), 139명(2.3%)로 가장 많았다. 반면에 성기 만지기와 성관계의 성접촉은 첫 번 만남부터 이루어지는 비율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기 만지기나 성관계의 성접촉 시점으로 각각 104명(1.7%)과 102명(1.7%)이 첫 번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성기 만지기와 성관계 경험의 시기가 만남의 횟수에 따른 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빈도를 보여 성기 만지기와 성관계는 거의 동시에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다.

3.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자아존중감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최고 점수인 40점 5명(0.1%)과 최저 점수의 10점도 1명 있었다.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자아존중감 평균값은 27.43 ±4.03점으로 나타났다.

4.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자기주장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자기주장은 최고 점수인 21점이 773명(17.0%)이었고, 최저 점수의 7점도 1명 있었다.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자기주장 평균값은 17.96(±2.55)점으로 나타났다.

5.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성접촉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주장

1)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최종 성접촉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성접촉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어떤 성접촉도 하지 않은 군이 자아존중감의 점수가

〈표 4〉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만남의 횟수에 따른 성접촉 분포 n=6130, 단위:명(%)

	만난첫날	2-3회	4-5회	6-7회	8-9회	10회 이상	안했다.	무응답
손잡기	1950 (31.8%)	1640 (26.8%)	508 (8.3%)	217 (3.5%)	65 (1.1%)	549 (9.0%)	904 (14.7%)	297 (4.8%)
어깨 동무	1101 (18.0%)	1367 (22.3%)	707 (11.5%)	323 (5.3%)	142 (2.3%)	548 (8.9%)	1578 (27.4%)	364 (5.9%)
가벼운 뽀뽀	456 (7.4%)	688 (11.2%)	470 (7.7%)	340 (5.5%)	184 (3.0%)	783 (12.8%)	2689 (47.9%)	522 (8.5%)
키스	327 (5.3%)	435 (7.1%)	335 (5.5%)	269 (4.4%)	153 (2.5%)	788 (12.9%)	3212 (52.4%)	611 (10.0%)
가슴 만지기	125 (2.0%)	119 (1.9%)	105 (1.7%)	77 (1.3%)	47 (0.8%)	256 (4.2%)	4758 (77.6%)	643 (10.5%)
성기 만지기	104 (1.7%)	43 (0.7%)	22 (0.4%)	33 (0.5%)	14 (0.2%)	117 (1.9%)	5134 (83.8%)	663 (10.8%)
성관계	102 (1.7%)	42 (0.7%)	26 (0.4%)	22 (0.4%)	12 (0.2%)	139 (2.3%)	5117 (83.5%)	670 (10.9%)

제일 높았고, 성접촉이 진행됨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평균이 떨어짐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성관계 단계에서 자아존중감 평균값이 현저하게 떨어져 26.56점을 나타내었다. 자기주장 점수는 손잡기를 한 군이 18.51로 가장 높았다. 그 외의 성접촉인 가벼운 뽀뽀, 키스, 가슴 만지기, 성교의 경우에는 성접촉이 진행됨에 따라 자기주장 점수가 점점 낮아져 성관계를 경험한 군의 경우에는 16.67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최종 성접촉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 평균값의 차이의 유의성을 ANOVA로 검증해 보면 최종 성접촉 단계로 구별되는 그룹따른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 정도는 각각 유의도 .000로서 평균값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최종 성접촉에 따른 자아존중감 n=6130, 단위:명

구분		자아존중감 (mean±SD)	F	sig.
안했다	(n=802)	27.83±4.05	9.351	.000*
손잡기	(n=598)	27.80±3.99		
어깨동무	(n=1221)	27.77±4.02		
가벼운 뽀뽀	(n=659)	27.57±4.05		
키스	(n=1574)	27.09±3.96		
가슴만지기	(n=350)	27.12±4.12		
성기 만지기	(n=0)	-		
성관계하기	(n=433)	26.56±4.10		

〈표 6〉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최종 성접촉에 따른 자기주장 n=6130, 단위:명

구분		자기주장 (mean±SD)	F	sig.
안했다	(n=802)	18.32±2.53	39.280	.000*
손잡기	(n=598)	18.51±2.52		
어깨동무	(n=1221)	18.45±2.32		
가벼운 뽀뽀	(n=659)	18.28±2.33		
키스	(n=1574)	17.98±2.41		
가슴만지기	(n=350)	17.02±2.64		
성기 만지기	(n=0)	-		
성관계하기	(n=433)	16.67±2.90		

2)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최종 성접촉에 따른 자아존중감 추후검증

자아존중감 점수를 Duncan test로 추후 검증했을 때 유의 수준 0.05의 검증으로 세 그룹으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 그룹은 성접촉 안한 군, 손잡기, 어깨동무, 가벼운 뽀뽀가 한 군으로, 두 번째 그룹은 키스, 가슴 만지기 그룹이 다른 한 군으로, 세 번째 그룹은 성관계한 군으로 나뉘어 졌다. 이하의 설명은 그룹 1, 2, 3로 칭한다. 이를 다시 Scheffe method로 각 그룹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그룹 1과 그룹 2는 평균차이 .6534로 그룹 1이 높은 평균값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 그룹 1과 그룹 3은 평균차이 1.1956로 그룹 1이 높은 평균값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 그룹 2과 그룹 3는 평균차이 .5422로 그룹 2가 그룹 3보다 높은 평균값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40).

〈표 7〉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최종 성접촉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그룹간 차이 검증

기준그룹	비교그룹	평균 차이	표준 오차	Sig.
Group 1 뽀뽀, 어깨동무, 손잡기 안한군	Group3 성관계	1.1956(*)	.2057	.000
	Group 2 키스, 가슴만지기	.6534(*)	.1155	.000
Group 2 키스, 가슴만지기	Group 1 뽀뽀, 어깨동무, 손잡기, 안한 군	-.6534(*)	.1155	.000
	Group3 성관계	.5422(*)	.2140	.040
Group3 성관계	Group 2 키스, 가슴만지기	-.5422(*)	.2140	.040
	Group 1 뽀뽀, 어깨동무, 손잡기 안한군	-1.1956(*)	.2057	.000

3)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최종 성접촉에 따른 자기주장 추후검증

자기주장 점수를 Duncan test로 추후 검증했을 때 유의 수준 0.05의 검증으로 네 그룹으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 그룹은 성접촉 안한 군, 손잡기, 어깨동무, 가벼운 뽀뽀를 한 군으로, 두 번째 그룹은 키스와 가벼운 뽀뽀한 군으로, 세 번째 그룹은 가슴 만지기한 군, 네 번째 그룹은 성관계한 군으로 나뉘어 졌다. 이하의 설명은 그룹 1, 2, 3, 4로 칭한다.

이를 다시 Scheffe method로 각 그룹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그룹 1과 그룹 2는 평균차이 .3784로 그룹 1이 높은 평균값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 그룹 1과 그룹 3은 평균차이 0.5422로 그룹 1이 높은 평균값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0). 그룹 1과 그룹 4는 평균차이 1.7692로 그룹 1이 그룹 4보다 높은 평균값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 그룹 2는 그룹 3과 평균차이 1.0449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 그룹 2는 그룹 4와 평균차이 1.3908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 그룹 3은 그룹 4와 평균차이 .3459로 검증력 0.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p=.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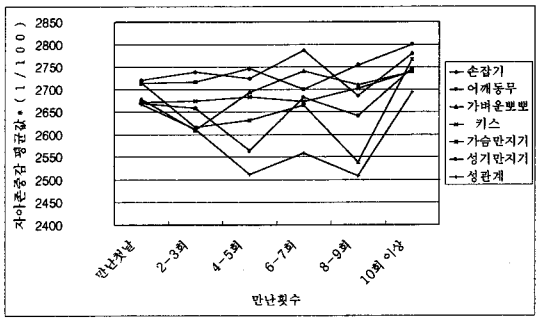
〈표 8〉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최종 성접촉에 따른 자기주장의 그룹간 차이검증

기준구룹	비교구룹	평균차이	표준오차	Sig.
Group 1 안한 군, 어깨동무, 손잡기	Group4 성관계하기	1.7692(*)	.1345	.000
	Group3 가슴 만지기	1.4232(*)	.1491	.000
	Group2 키스, 가벼운 뽀뽀	.3784(*)	8.278E-02	.000
Group 2 키스, 가벼운 뽀뽀	Group4 성관계하기	1.3908(*)	.1316	.000
	Group3 가슴 만지기	1.0449(*)	.1465	.000
	Group 1 안한 군, 어깨동무, 손잡기	-.3784(*)	8.278E-02	.000
Group 3 가슴 만지기	Group4 성관계하기	.3459	.1808	.301
	Group2 키스, 가벼운 뽀뽀	-1.0449(*)	.1465	.000
	Group 1 안한 군, 어깨동무, 손잡기	-1.4232(*)	.1491	.000
Group 4 성관계하기	Group3 가슴 만지기	-.3459	.1808	.301
	Group2 키스, 가벼운 뽀뽀	-1.3908(*)	.1316	.000
	Group 1 안한 군, 어깨동무, 손잡기	-1.7692(*)	.1345	.000

6.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만남의 횟수와 성접촉의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

1)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만남의 횟수와 성접촉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평균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만남의 횟수와 성접촉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평균값으로 살펴보면 손잡기, 어깨동무, 가벼운 뽀뽀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성접촉일 경우에는 시기와 관계없이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이 별 차이가 없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키스를 경험군인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만남의 횟수가 반복되면서 성접촉이 이루어졌다. 비교적 심각한 성접촉이라고 생각되는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성 관계하기등의 단계에서는 양분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접촉이 첫 번 만남부터 이루어지는 군과 10회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군과 비교적 높은 자아존중감의 점수를 나타내었으나, 2-9회 째의 만남에서 성접촉이 이루어지는 군은 첫날 접촉한 군과 10회 이상 접촉한 군에 비하여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어 결과적을 만남의 횟수에 따른 자아존중감 점수는 U Shape을 띄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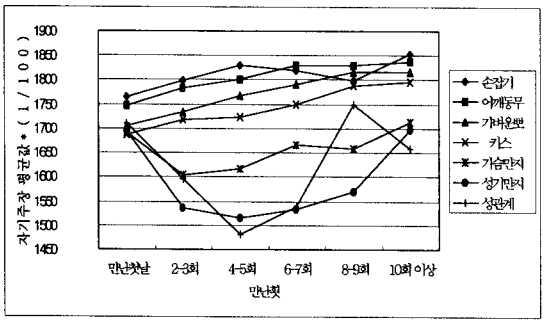


〈그림1〉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만남 횟수에 따른 성접촉과 자아존중감

2)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만남의 횟수와 성접촉에 따른 자기주장의 평균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만남의 횟수와 성접촉에 따른 자기주장 점수의 평균값으로 살펴보면 가벼운 성접촉이라고 생각되는 손잡기와 어깨동무를 10회 이상에서 접촉한 군은 성접촉을 안한 군보다 자기주장 점수가 높게 나왔다. 또한 자기주장이 높을수록 만남의 횟수가 반복되면서 손잡기, 어깨동무, 가벼운 뽀뽀, 키스를 경험하였고, 심각한 성접촉이라고 보여지는 성기 만지기, 성기

만지기, 성관계 경험의 경우에는 평균값이 양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 첫 번 만남부터 성관계를 한 그룹과 10회 이상에서 성관계한 그룹이 평균값이 2회에서 9회까지의 만남에서 성관계한 그룹에 비하여 더 높은 자기주장의 평균값을 보여 만남의 횟수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같은 U shape의 현상을 보였다.



〈그림2〉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만남의 횟수와 성접촉에 따른 자기주장

3)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만남의 횟수에 따른 성접촉과 자아존중감의 그룹간 차이 분석

각각의 성접촉이 몇 번째 만남에서 이루어졌는가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ANOVA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성기 만지기만이 만남의 횟수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모든 항목은 유의도 .000과 .002로 자아존중감 평균값이 각각의 성접촉과 만남의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만남의 횟수에 따른 성접촉과 자기주장의 그룹간 차이 분석

이성교제하는 십대여학생의 만남의 횟수에 따른 성접촉과 자기주장의 차이 분석을 ANOVA로 검증해 보면 모든 성접촉 단계에서 따른 자기주장이 각각 .000으로 만남의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로, 이성교제 과정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성접촉의 최종적인 성접촉 단계는 키스(1,634명, 26.7%)였다. 이는 이성교제를 하면서 성접촉을 하지 않는 군의 분포인 842명(13.7%)보다 더 많은 비율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성교제를 하는 여학생의 성교 경험률은 7.5%로 장순복 외(2000)에서 밝혀진 십대 여학생의 성교 경험률인 4.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성교제 경험이 있거나 이성교제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성교 경험률이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5-24배 높다는 이양재 외(199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비율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심하지 않아 1.5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이할 만한 결과로 여학생의 이성교제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경험한 성접촉의 단계에서 성기 만지기 단계의 대상자는 없었는데, 만남의 횟수에 따른 성접촉의 분포의 결과를 살펴볼 때 성기 만지기와 성교의 시기가 서로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 단계에 이르러서는 십대 여학생이 더 이상 성접촉을 멈추지 못하게 됨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기 힘든 불안전한 시기의 십대 여학생들은 성접촉을 더 이상 멈출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여학생이 이성교제하는 과정에서 가슴 만지기까지의 경험을 한 여학생의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성교육과 자기주장 능력에 중점을 준 교육을 통하여 더 이상 성접촉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거나, 만일의 경우에 우발적인 성교가 이뤄지더라도 추후에 있을 임신을 대비한 피임교육에 중점을 둔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성교제를 하는 십대여학생의 자아존중감 평균값은 27.43(±4.03)점이었는데 이는 장순복 외(2000)의 연구에서의 전체 십대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점수인 27.56(±4.10)보다 낮은 점수였고, 이성교제를 하지 않은 십대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점수인 27.67(±4.13)보다도 낮은 점수였다. 이성교제를 선망하는 청소년기에 그들의 발달과업 중에 하나인 이성교제를 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성교제를 했었던 십대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더 낮은 것은 의외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성교제 과정의 경험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고찰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여학생의 성접촉을 분류해 보면, 성접촉이 진행됨에 따라 십대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보다 자세히 분류하면 이성교제를 하는 전체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평균값인 27.43보다 높은 점수를 가진 성접촉은 손잡기, 어깨동무, 가벼운 뽀뽀까지였고, 키스,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성교의 성접촉은 이성교제하는 전체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의 평균값보다 낮은 자아존중감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성교제 과정에서 가벼운 뽀뽀까지의 성접촉은 오히려 십대 여학생의 높은 자아존중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키스를 경험한 군부터는 전체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평균값인 27.43보다 더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성교제하는 과정에서 여학생들이 경험하는 가장 많은 성접촉이 "키스" (26.7%, 1,634명)라는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의미있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즉, 이성교제하는 과정에서 십대 여학생들은 키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여학생들은 이것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아존중감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성교제하는 여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여학생들보다 더 자아존중감이 떨어진다고 보고한 장순복 외(2000)의 연구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게 되는 결과이기도 하는데 이성교제를 하였다고 해서 모두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접촉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다르며, 특히 키스를 중심으로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 점수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접촉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이성교제를 하는 십대 여학생은 이성교제하는 여학생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아존중감(27.83±4.05)을 보여주었으며 십대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평균값인 27.56(±4.10)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청소년기에서 선망하는 이성교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성접촉을 하지 않을 때 십대 여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남의 시점에 따른 성접촉 결과를 보면, 의미있는 자료로 성기 만지기와 성관계의 성접촉이 첫 번 만남부터 이루어지는 비율(1.7%)이 두 번째로 많은 결과를 보였다.

Miller(1975)는 성이란 성적 긴장을 풀어주고 감각적 즐거움을 주고받는 것을 포함하고 가까이하고 싶은 (closeness) 친밀감의 욕망이라 하였다(김혜숙, 1995, 재인용). 이성과의 만남이 진행됨에 따라 친밀감을 발단으로 한 이성교제 과정에서의 십대 성행위에도 여학생의 성건강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친밀감이 형성되기도 전에 청소년들이 성관계에 돌입하게 되는 경우는 청소년 비행 수준에 가까운 행위로서 청소년에게 심리적, 신체적으로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자아존중감이나 자기주장 정도는 2-9회에 성관계를 경험한 군과 비교하여 높은 값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는, 청소년기의 성접촉 경험의 정도가 자기주장이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성교제 전에, 혹은 성장과정에서 이미 개인이 갖고 있는 자아존중감이나 자기 주장능력이 이성교제간의 성접촉 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즉 십대여학생의 성교, 키스행위 등의 성접촉 자체가 자아존중감이나 자기주장에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접촉의 과정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 능력에 바탕을 둔 자신의 의지 반영 여부가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로서 일상의 대화나 성격면에 있어 개인의 사회적 행동과 역할을 결정하는 중심특성이며, 구체적이고 일시적이기보다는 지속적인 개인의 자아평가와 관련이 있다(Coopersmith, 1959).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쉽게 변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인 준거집단을 통한 자기 평가를 통하여 서서히 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호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성접촉 경험 여부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며, 역으로 자아존중감이 이성간의 성접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이성교제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접촉으로 인한 십대 임신, 낙태 등의 제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십대 여학생에게 이성과의 접촉 기회가 주어지기 이전부터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즉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시도되어져야 하며, 더불어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여 자신이 원치 않는 성접촉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준비시키는 방향으로의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성접촉 조기 경험군의 높은 자아존중감이나 자기주장의 점수로부터 이들을 청소년 비행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만난 초기부터 자기 스스로가 자기주장을 하여 성교한 그룹으로서 자아존중감도 손상 받지 않는 상태에서 십대의 성·생식 건강 위험행위를 하고 있는 그룹으로 간주하여, 이성교제하는 십대 여학생 중에서 가장 집중적인 교육과 간호 중재를 필요로 하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다.

김진엽(1996)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문제 행동은 약물 사용, 음주, 흡연, 조숙한 성 행동, 규칙 위반 등이 있는데 이를 실질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범죄와 지위비행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중에서 범죄란 살인, 강도와 같이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 일체이며, 지위비행은 음주, 흡연, 조기성교 등과 같이 어른들에게는 괜찮으나 청소년이란 지위 때문에 문제가 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중에서 지위 비행은

청소년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성교 조기 접촉군의 행위는 청소년 지위 비행이라고 간주되며 이러한 사실은 십대 비행과 성행위의 중복성을 설명한 많은 연구가 뒷받침해 주고 있다(김태근, 1997; 함웅, 1985; Huizinga, 1993; Miham, 1990; Rone, 1998; Seamark, 1998). 따라서 성교 조기 접촉 경험을 한 십대 여학생의 문제는 일반적인 이성교제 과정에 대한 중재보다는 십대 청소년의 비행 차원의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Kaplan(1975)은 7학년 3천명을 대상으로 3년에 걸쳐 조사한 그의 연구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비행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한 개인이 자신의 소속집단에서 모욕, 멸시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하였으며, 그렇게 낮아진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은 자신의 소속집단(가정, 학교, 또래집단)에 참여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지며, 그 결과 소속집단의 규범에 동조하지 않으려 하는 반규범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동기(self esteem motive)가 계속 좌절되고 있음을 느끼지만 규범의 동조를 통해서는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일탈적인 행동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런 구조에서 청소년은 다른 비행 청소년들에게 인정과 지지를 받으면서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유형의 비행 및 문제행동 등이 자신이 그간 겪어 왔던 무력감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줌과 동시에 용기, 기술 등을 과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비행청소년은 비행청소년 집단의 준거 집단으로 여기며 그들의 평가와 지지에만 의존하게 되고, 더 이상 교사, 부모, 학교 급우들의 평가나 인정에는 신경을 쓰지 않게 되므로써 자아존중감을 손상 받을 여지도 줄어들게 된다(Rogenberg & Kaplan, 1982). 이로 인해 청소년의 비행은 자아존중감을 위협당하는 상황의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반항행동으로 시작되며, 그 과정에서 비행 청소년들은 손상된 자아존중감이 회복되는 반대급부를 얻으면서 그 과정이 확대 재생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관계 조기 접촉 그룹은 일상에서의 탈피와 일탈적 또래 그룹의 평가적 준거 집단의 압력으로 인한 충동적인 성관계를 갖고, 부모, 교사, 학급급우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지 않으므로 자아존중감을 손상받을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자아존중감의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아진다. 십대여학생의 무모한 성행위는 후속적인 임신, 낙태, 성병 등의 성·생식보건의 문제의 발단이 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되며,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삶에 치명적인 상처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그룹의 성교육은 비행 청소년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이나 자기주장훈련 프로그램과 더불어 보다 더 적극적인 다른 차원의 간호학적 중재를 필요로 하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성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성생식 관련한 신체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성·생식 관련 주제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느껴야 하며, 자신이 가진 성을 편안하게 인식하고 성적 존재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야 하며, 성 관련 제반 상황에 노출될 때에 성적인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박영숙 외, 1999). 자율성이란 성과 관련하여 원치 않는 상황에 노출될 때 자신의 느낌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며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성교제하는 여학생들의 성접촉에 따른 성 생식 문제의 예방 차원의 성교육 내용으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며, 동시에 자아존중감의 배양 역시 십대여학생의 성교육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임이 본 연구에서 드러났다. 특별히 이 연구는 기존의 십대여학생의 성교와 임신에 초점을 맞추는 문제중심적인 연구와는 달리 대다수의 여학생이 경험하는 이성교제 과정과 그 과정에서 쉽게 경험하게 되는 여러 단계의 성접촉에 대한 조사와 함께 여학생의 삶의 질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인에 대한 고찰을 시도함으로서 모든 여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중재요인을 찾은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단위로부터 체계적, 계통적으로 표본추출한 가운데 도출된 자료로서 우리나라 십대 여학생에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연구결과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사춘기에 접어든 여학생들에게 이성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능력 배양을 위한 성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여학생이 경험한 성접촉의 단계에 따라서 십대여학생들에게 차별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십대여학생들의 자아

존중감과 자기주장 정도에 따른 성접촉 경험의 정도를 조사함으로서 십대여학생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성교육 지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은 우리나라 대도시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인천의 7개 도시와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의 9개도 지방의 254개교에 다니는 12,733명의 십대여학생 중 이성교제 중에 있거나 과거에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십대여학생 6,1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이성교제시 성접촉 경험에 관한 7문항, 자아존중감에 관한 문항 10문항, 자기주장에 관한 문항 7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32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0년 10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우편을 이용한 질문지 자가 보고법이었다. 자료분석 방법은 PC용 SPSS 10.0 Program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범위 등의 서술통계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주장능력, 신체적 성접촉 정도의 차이 검정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추후 검사로 Duncan method를 통하여 유사한 성접촉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성교제 과정에서 여학생이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성접촉은 키스(1,634명, 26.7%)였다. 심각한 성접촉이라고 생각되는 가슴 만지기와 성기 만지기, 성교하기는 817명(13.4%)로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성교제 과정에서 성접촉을 안하는 군은 842명(13.7%)에 불과하였고, 이성교제를 하는 여학생의 성교 경험율은 458명(7.5%)였다.
2. 성접촉이 만남의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분포는 만난 첫날에 1,950명(31.8%)이 손을 잡았고, 어깨동무는 2-3회에 1,367명(22.3%)이 접촉하였다. 그 외의 가벼운 뽀뽀, 키스, 가슴 만지기, 성기 만지기, 성관계는 10회 이상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기 만지기와 성관계를 경험한 그룹은 만난 첫날부터 경험한 군이 두 번째로 많은 빈도(1.7%)를 보여주었다.
3. 이성교제하는 십대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은 27.43±4.03이었고 자기주장 평균값은 17.96±2.55 였다.
4. 이성교제시 성접촉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정도를 보면 성접촉이 진행될수록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의 평균값이 떨어졌고 각 접촉 단계에 따른 그룹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
6. 성접촉 경험의 시기에 있어서 만남의 횟수에 따른 자기주장과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을 살펴봄 결과 손잡기와 어깨동무의 경우 만남의 횟수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가벼운 뽀뽀, 키스까지의 성접촉을 한 경우에는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 점수가 높을수록 만남의 횟수가 반복된 후 늦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심각한 성접촉이라 생각되는 가슴 만지기나 성기 만지기, 성관계를 경험한 군의 경우는 만난 첫날 경험한 군과 10회 이상에서 경험한 군의 자아존중감이나 자기주장정도가 2회에서 9회 사이에 경험한 군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 U shape의 현상이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은 십대 여학생의 성접촉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증명되었고 ($p=0.000$, $p=0.000$), 여학생의 올바른 이성교제를 위한 성교육 내용으로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및 자기주장 훈련이 포함되어야하며 성접촉에 따라서 여학생에게 차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십대여학생들이 이성교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성접촉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다룸으로서 차별화된 성교육과 올바른 이성교제에 지침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2. 청소년이 조기 성교에 이르게 되는 여러 가지 관련 요인 중에서 사회 심리적 변수를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중재 가능한 요인을 밝혀 내었다.
3. 인문, 실업, 주간, 야간, 남녀공학, 여학교, 도시, 지방 및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역에 걸친 자료수집을 통하여 대표성 있는 연구결과를 보여 주었다.

2. 제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1. 10대 여성의 임신실태 및 예방 대책의 대단위 조사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에서 분석한 결과로서 설문지가 길어질 것을 염려하여 보다 문항이 자세한 자아존중

감 도구나 원치 않는 성접촉시에 거절할 수 있는 자기주장 도구와 병행하여 일반적인 자기주장 도구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개념의 대표성이 떨어질 염려가 있다.

2. 한국의 십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성 있는 표본 추출을 위하여 다단계 집락 표출법을 이용하였으나 완전 무작위 표출법에 비하여 대표성에 제한점이 있다.
3. 우편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각 학교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고위험 집단이라고 생각되는 야간 고등학교의 질문지 수거 비율이 1.2%에 그치는 등 학교차원의 협조 여부에 따른 회수율에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점이 있다.
4. 십대여학생들이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의 지도하에 작성한 설문지로서 성관련 경험에 관한 질문지에 솔직하게 응답하였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5. 만남의 횟수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의 점수는 평균과 분산 분석을 통한 차이검정만 있을 뿐이므로, 추가적으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십대 여학생을 위한 성교육 내용으로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 및 자기주장 훈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십대 여학생의 이성교제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접촉 경험에 따라 여학생들에게 차별화된 성교육이 실시되어져야 할 것이며 각각의 단계에 따른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3. 만난 첫날 성교를 경험한 군인 102명(1.7%)의 여학생의 일반적인 특성 및 다른 변수를 찾는 후속 연구가 이어져 이들을 위한 차별화된 중재 접근이 시도되어져야 할 것이다.
4. 십대 이성교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질적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5. 같은 연구를 남학생에게도 실시하여 청소년기의 이성교제에 대한 남녀의 차이를 비교 연구하여 성교육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만남의 횟수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자기주장능력의 평균값에 나타난 유의성 검증을 위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태순 (1993). 여고생의 이성교제, 성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상원 (1995).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전한 성문화 정착 방안과 바람직한 성교육 방향. 청소년 성문제 대처방안에 대한 세미나 자료집. 성문화 연구소

김상원 (1996). 남자고등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 성문화연구소.

김언희 (1992). 여고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김영희 (1992). 청소년의 성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정옥 (1993). 울릉군 청소년들의 성의식, 실태조사 연구. 가정생활 연구.

김진엽 (1996). 고교생의 문제행동 및 동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태근 (1997). 청소년의 성의식, 성행동과 비행의 관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김혜숙 (1995). 인간과 성. 서울: 에드텍.

미태순 (1994). 여고생의 이성교제, 성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영숙 외 (1999). 현대여성의 건강생활. 서울:현문사.

안창선 (1993). 한국 십대의 성적 태도와 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춘천 교육대학교 학생 생활 연구소.

이숙경 (1993). 미혼여성의 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양재 외 (1997). 여고생의 성의식 및 성실태 조사연구. 서울: 성문화 연구소

이양재, 김수련, 송은일, 서정애, 오윤경 (1998). 여고생의 성 경험 및 혼전 성 관계 허용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전국 실업계, 인문계 여성을 중심으로-. 서울: 성문화 연구소.

이양재, 외 (1998). 미혼 성인의 성의식 및 성행태 조사연구. 서울; 한국 성문화 연구소.

이 찬 (1996). 한국여성의 성 행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임용자 (1987). 근로 청소년의 성적 갈등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교육 대학원.

장순복, 김소야자, 한인영, 박영주 (2000). 십대 여성의 임신실태 및 예방대책.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장순복, 이양재, 박순정, 송은일, 서정애, 서정애, 오윤경 (1998), 대학생의 성행태 조사연구. 한국 성문화 연구소.

전병재 (1972). 자아개념 이혼에 관한 고찰. 인문 과학, 연세대학교 인문연구소, 107-108.

최수일 (1996). 대중매체가 중학생의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최연순 외 8인 (1999). 여성건강간호학 I II. 서울: 수문사.

함 웅 (1985). 성의식 구조 및 행동양식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홍경자 (1996). 청소년 집단상담. 청소년 대화의 광장. 22-23.

홍원호 (1995). 남고생의 이성교제와 성의식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Argyle, M. (1972). Self-image and Self-esteem. The Psychology of International Behavior. England: Harmond Sworth. 42-53.

Atwarter, E. (1992). Adolescence. Englewood Cliff, NewJersey: Prentice Hall

Claire Brindis(1999). Building for the future: Adolescent pregnancy prevention. Journal of Americal Medical Womens Association, 54(3), 129-132.

Coopersmith, S. (1959). A method for determining types of self-esteem.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87-94.

Fensterheim, H., & Baer, J. (1975). Don't say yes when you want to say no. New York: Dell Publishing Co.

Galassi, M. D., & Galassi, J. P. (1977). Assert Yourself! : How to be your own person. New York: Human Sciences Press.

Gorden, S., Scales, P., & Every, K. (1979). The sexual adolescent: Communicating with teenagers about sex. North Scituate Mass: Duxbury.

Guggino, J. M., Ponzetti, J. J. Jr. (1997). Gender difference in affective reaction to first coitus. Journal of Adolescence, 20(2), 189-200.

Huizinga, D., Loeber, R., & Thornberry, T. P. (1993). Longitudinal study of delinquancy, drug use, sexual activity and pregnancy among children and youth in three cities. Public Health Reports, 108(1), 90-96.

Joyce, Abma., Anne, Driscoll., & Kristin, Moore. (1998). Young Women's Degree of Control.

Kaplan, & Howard, B. (1975). Sequelae of self-derogation: predicting from a general theory of deviant behavior: Youth Society, 7(2), 171-197.

Miham, S. Davis, R. L., Tollestrup K. (1990). Trends in teenage smoking during pregnancy, Washington state: 1984 throuh 1988, American Journal of Disease Child, 144, 1297-1301.

Moore N. B., & Davidson, J. K. Sr. (1997). Guilt about first intercourse an antecedent of Sexual dissatisfaction among college woman.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23(1), 29-46.

Reasoner, Robert. W. (1994). Self-esteem as an Antidote to Crime and Violence. ERIC Document Reproduuction Service No. ED, 373-281.

Rogenberg, M., & Simmons, R. G. (1971). Black and White self-esteem, The urban school child, Washington, Ros Monograph series,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1-10.

Rogenberg, M., & Kaplan, H. B. (1982). self -attitude and deviant responses, in Social Psychology of the self oncept, Arlington Heightes II, Harlan Davison Inc, 452-462.

Rogenberg, Morris. (197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Conceiving the self. NewYork: Basic Book, Inc.

Rone E. S., Rybicki, L. A., & Durant R. H. (1998). Pregnancy and other Risk Behaviors Among Adolescent Girls in ohio.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2, 50-55.

Rosenthal, D. A., Smith, A. M., & de Visser, R. (1999). Personal and Social factors influencing age at first sexual intercourse. Achives of Sexual Behavior, 28(4), 319-333.

Seamark, C. J., Denis, J. P. Gray (1997). Like mother, like daughter: a general practice study of maternal influences on teenage pragnancy. British journal of General Practice,

47. 175-176.
Seamark. C. J., & Gray D. J. (1998). Teenager and risk-taking: pregnancy and smoking. British Journal of General Practice, 48(427), 958-986.
Wood K., Maforth, F., Jewkes, R. (1998). "He forced me to love him": Putting violence on adolescent sexual health agenda. Soc. science. Med, 47(2), 233-242.

-Abstract-

Key concept : Teenage girls, Dates, The level of sexual contacts, Self-esteem, Self-assertiveness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Sexual Contacts and Self-Esteem, Self-Assertiveness of Teenage Girls Who Have or Had Boyfriends*

*Lee, Sun Kyoung***

This i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that aim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sexual contacts during the dates and psycho-social factors in teenage girls who have or had boyfriend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contacts and self-esteem and self-assertivenes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6,130 teenage girls who have or had boyfriends. They were selected convienently 12,733 teenage girls from 254 secondary schools located in 7 large cities and 9 provinces in Korea.

A structured questionaire was used it included items on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levels of sexual contacts, self-esteem and self-assertiveness. Seven levels of sexual contacts were rated they were holding a hand, putting arms around each other's shoulders, kiss, french kiss, touching breast, petting genitalia, and sexual intercourse during the dates. Self-esteem and self-assertiveness were measured by the "Self-esteem scale" of Rogenberg (1971) and the questionaires developed by S. B. Chang et al(2000), respectively.

The self-reported questionaires were collected from October 2, to October 28, 2000 and analyzed by using SPSS 10.0 Program.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One-way ANOVA with Duncan method & Scheffe metho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1. An average Percentage of the respondents who have (46.1%) or had (53.9%) boyfriends was 48.1% (n=6,130) and the most common sexual contact during the dates was french kiss (26.7%, n=1,634). While 7.5%(458) of respondents had a sexual intercourse, 13.7%(842) of respondents didn't have any sexual contact during the dates.
2. Distribution of starting point of the first sexual contact demonstrates that 1,950 respondents (31.8%) held partner's hand at the first date and 1,367 respondents (22.3%) put arms around each other's shoulders at the 2nd or 3rd date. Sexual contacts such as kiss, french kiss, touching breast, petting genitalia, or sexual intercourse were experienced mostly at the later than the 10th date. However, surprisingly large number(1.7%) of respondents had genital contact and sexual intercourses at the first date.

* 2000년 2월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제출 논문임

**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3. The means of self-esteem and self-assertiveness scores of the respondents who have or had boyfriends are 27.43(±4.03) and 17.96(±2.55), respectively. The range of scores for self esteem was 10-40, 40 with most self esteem. The range of scores for self assertiveness was 7-21, 21 with most self assertiveness.
4. As sexual contacts proceeded, the means of self-esteem and self-assertiveness values decreased. In detail, the respondents having no or light sexual contacts (kiss, putting arms around each other's shoulder, holding a hand) had similar self-esteem values($p \leq 0.05$). However, ones having relatively intensive sexual contacts (french kiss, touching breast) showed significantly lower self-esteem values($p \leq 0.05$). Same trend has been obtained for self-assertiveness value.
5. The higher values of self-esteem and self-assertiveness values the respondents had, the later they started the moderate sexual contact (kiss, french kiss) during the dates. Interestingly, among the respondents having intensive sexual contacts (petting genitalia, sexual intercourse) during the dates, those who experienced the such contacts at the first date or later than 10th date have higher self-esteem and self-assertiveness values than ones experienced the such contacts during the 2nd~9th dates, giving U-shape curve.
6.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elf-assertiveness in girls who have or had boyfriends($P \leq .001$).

In conclusion, the research shows that self-esteem and self-assertiveness values a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sexual contacts of the teenage girls who have or had boyfriends. These results strongly suggest that proper sex education program for teenage girls should contain the program on improving the self-esteem and self-assertiveness. We believe that sex education program is the one of the best ways to prevent the unwanted sexual contacts and pregnancy of teenage girls.